



스위스정부관광청, 스위스가 대신 여행해 드립니다!

한국인 참가자가 하고 싶은 경험을 말하면, 스위스 현지인 아바타가 대신 체험
본인이나 가족, 친구에게 남기고 싶은 말도 한국말로 대신 전달
현지인 아바타들을 통해 현실화 된 체험은 총 5 개의 영상으로 제작

해외 여행지로 떠나기 쉽지 않은 요즘, 국내외 여행지를 랜선으로 즐기는 여행법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사진과 영상을 감상하고 추억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경험을 찾아 구매 하거나, 실제 여행지에 있는 전문 가이드나 현지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생한 체험을 공유 받는 여행법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여행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여행을 원하는 이들의 소원을 '대신' 이루어주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스위스로의 여행을 원하는 이들이 스위스에서 해보고 싶은 총 9 개의 체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본인이 전하고 싶은 말도 함께 스위스정부관광청으로 전달하면, 스위스 현지인들이 그들의 아바타가 되어 대신 체험을 하고 이를 라이브 및 영상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지난 10 월 7 일부터 일주일 간 스위스정부관광청 인스타그램(@Myswitzerlandkr)과 페이스북 (@Myswitzerlandkr)을 통해 참가자들의 소원을 댓글로 신청 받았다. 그 결과 총 1,300 여명이 참여했고, 스위스 현지인 아바타들이 최종 선택한 참가자 총 5 명의 소원이 '대신'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종 선택된 총 5 명의 소원은 '해발 4000M 마테호른에서 페러글라이딩', '알프스 리기산에서 한국 스타일로 삼겹살 구워 먹기', '루체른 호수를 바라보며 파크 비즈나우 호텔에서 야외 스파하기', '고르너그라트 정상에서 한국 컵라면 먹방', '이젤발트에서 <사랑의 불시착> 처럼 피아노연주하기' 이다. 이 외에도 한국인 여행자가 전하고 싶은 말을 스위스 현지인들이 한국말로 전하는 것도 이번 캠페인의 재미 요소이다.

이들 아바타들의 '대신' 체험은 10 월 26 일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차례대로 영상을 통해 공개가 될 예정이다.

스위스정부관광청 김지인 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스위스에서의 여행 체험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스위스로의 여행을 꿈꾸고 기다리는 여행자들의 마음 또한 함께 엿볼 수 있었다. 스위스 여행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을 때까지 향후에도 여행자들과 즐겁게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스위스정부관광청의 <I need Switzerland>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쉽게 스위스를 갈 수 없는 여행자들을 위해 한국사무소에서 <I need Switzerland through YOU> 으로 런칭했다. 한국에서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같은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